

# 실책에 무너진 KIA 마운드... “흔들리지 말고 버텨라”



### 박정우·김도영 등 실책 3개로 KT에 2-13 대패 라우어, 주말 삼성전에 데뷔전...선발진 한숨 돌려

울고 싶은 제임스 네일, 그래도 버텨야 한다.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지난 7일 KT 위즈와의 경기 끝난 뒤 선수들과 미팅을 진행했다. 미팅을 통해 이 감독은 '수비' 이야기를 나눴다.

제임스 네일을 선발로 내세웠던 이날 KIA는 2-13 대패를 기록했다.

초반에 3개의 실책이 나오면서 네일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

1회 시작과 함께 중견수 박정우의 포구 실책이 나왔고, 이어 3회 3루수 김도영의 송구 실책, 4회 포수 김태균의 포구 실책이 이어졌다.

유독 네일 등판일이면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실책 퍼레이드가 펼쳐졌고 네일은 3.2이닝(94구) 12피안타(1피홈런) 2탈삼진 8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네일의 책임 점수는 '2점'이었다.

이범호 감독은 지난 네일의 등판에서도 이런 흐름을 의식해 수비형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중견수 박정우와 2루수 홍종표로 '선수비' 전략을 짰지만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가 실책을 기록하면서 네일은 0-1 경기의 패전 투수가 됐다.

이범호 감독은 8일 "수비 보장한다고 라인업을 짰는데 잘 맞은 타구이기는 했지만 잡았으면 쉽게

풀렸을 것이다. 수비 위주로 오더를 짜도 실수가 나와서 나도 답답하다. 어제는 네일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다"며 "매 경기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선수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 30-40분 정도 이야기하면서 잠고 가야 할 부분 확인하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공격이 좋을 때는 수비 실수가 나와도 이를 만회할 수 있지만 지금은 타격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 실책이 나오면 안 된다"며 "실책은 나올 수 있지만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나온 실책과 아닌 것은 다르다. 마음 다잡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KIA는 선발진 조부상으로 시즌 내내 마운드 위기를 겪고 있다. 타격의 힘으로 위기를 넘겨오고 있지만 실책 1위를 지키면서 마운드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야수진의 집중력을 강조한 이범호 감독, 마운드를 누구보다 애타게 지켜보고 있는 정재훈 투수 코치는 "그래도 버텨야 한다"고 말한다.

정재훈 코치는 "냉정하게 투수 코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면 그래도 마운드에서 버텨줘야 한다. 팀 타선이 힘이 있기 때문에 버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야수들의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강조했다.

선발진의 조부상으로 구상과 다른 시즌을 보내고

있고, 야수들의 실책도 마운드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KIA는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메이저리그 36승에 빛나는 에릭 라우어라는 새로운 동력도 얻었다.

7일 선수단과 상견례를 하고 개지불을 소화했던 라우어는 8일에는 마운드에서 피칭을 하면서 30구를 소화했다. 라우어는 직구, 커브, 커터, 체인 지업을 시험했고 직구 최고 구속은 146km를 기록했다.

라우어는 "전체적으로 좋았다. 투구 메커니즘도 좋았다. 공인구가 다르니까 실밭이 더 잘 느껴지고, 로진도 더 좋다고 했다"며 "기대가 된다. 무엇보다 재작년 작년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만큼 건강하게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많이 어렵지 않다. 그런 기분과 몸상태를 유지하면서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워밍업을 끝낸 라우어의 출격 준비는 끝났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주말 삼성전이 라우어의 KBO 리그 데뷔전이 될 전망이다.

여러 약재에도 1위를 지키고 있는 KIA가 라우어를 앞세워 위기의 순간을 버티고 우승으로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에릭 라우어가 8일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서 이범호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칭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태권도 80kg급 서건우 '금빛 발차기' 도전 극적 올림픽행 이한빛 레슬링 62kg급 출전



오늘의 파리올림픽

개막 14일째를 맞는 9일(한국시간)에는 태권도 남자 80kg급 서건우(한국체대)에게 금메달 소식을 기대할 만하다.

서건우는 9일 오후 4시 21분 프랑스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급 16강전에서 호아킨 추르칠(칠레)을 상대한다.

8강과 4강 대진은 비교적 험난한 편으로 8강에서 걸려온 상대 살리흐 엘사라비티(요르단)를 만날 가능성이 크고, 이기면 4강에서는 올림픽 랭킹 1위 시모네 알레시오(이탈리아)와 격돌할 것이 유력하다.

올림픽 남자 80kg급에 한국 선수로는 처음 출전하는 서건우는 "선배들이 많은 것을 물려주신 것처럼 나도 후배들에게 멋진 선구자가 되도록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레슬링 여자 자유형 62kg급에는 이한빛(안주군청)이 출전한다.

이한빛은 원래 이번 대회 출전권이 없었다가 이달 초 북한 문현경이 출전권을 반납하면서 극적으로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파리 올림픽 아시아 쿼터 대회에서 올림픽 티켓을 따내지 못한 이후 스트레스성 마비 증상까지 겪었던 그는 "그토록 바랐던 무대를 밟게 된 만큼 후회 없이 경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역도 남자 89kg급에는 유동주(진안군청)가 개인 통산 세 번째 올림픽 무대에 선다. 유동주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14위, 2021년 도쿄 8위 등으로 수상할 국선을 그리고 있어 이번 대회 상위권 입상을 노린다.

유망 종목인 근대5종 전운태(광주시청), 서창완(국군체육부대)는 준결승까지 치르며 메달 가능성을 타진한다.

수영 아티스틱 스위밍에서는 이리영(부산수영연맹)과 허윤서(성균관대)가 '톱10' 진입을 목표로 수중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림픽 아티스틱 스위밍 듀엣에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것은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올해가 12년 만이다. 이 종목 한국의 올림픽 최고 성적은 2000년 시드니 대회 유나미-장운경의 11위다. /연합뉴스

## 광주FC 3연승 도전... '98 듀오' 이희균·이전희 활약 기대

### 오늘 전북현대 상대 원정경기

'98' 듀오 이희균, 이전희가 광주FC의 3연승에 앞장선다.

광주FC는 9일 오후 7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K리그1 2024 26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휴식이 이후 진행되는 첫 경기에서 광주는 3연승을 노린다.

광주는 앞서 대구 원정에 이어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고 연승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두 경기 연속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3연승에 도전하는 무대지만 '악재'가 있다.

광주의 살림꾼인 미드필더 정호연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중원의 핵심이 자리를 비우게 됐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기다리는 선수들이 있다.

안정적인 볼 배급이 강점이 이강현과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가 돋보이는 최경록 정호연의 공백 메우기에 나선다. 또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루키' 문민서도 제2의 정호연을 의지하며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는 또 팀의 핵심인 '98듀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저돌적인 돌파와 매서운 슈팅으로 그라운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부주장' 이희균과 올 시즌 전북 원정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이전희가 팀 승리를

위에 앞장선다. 지난 토요일 선문대의 연습경기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신창무도 든든하다.

거침없는 움직임과 공격 본능으로 광주의 공격 핵심으로 떠오른 가브리엘과 함께 기다림 끝에 다시 신임을 얻은 아사시의 헌신적인 플레이도 눈에 띈다. 주포 베가의 예리한 발끝도 기대된다.

올 시즌 하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은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전력을 보강했다. 이승우가 전북 유니폼을 입었고, '브라질 삼총사' 안드레고-티아고-에르난데스와 송민규, 문선민 등으로 막강 화력을 구성했다.

광주가 전북과 화력 맞대결에 나선 뜨거운 금요일 밤 승리를 만들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럭비 꿈나무·동호인 최강팀 가린다... 전국대회 오늘 개막

### 청주서 17일 7인제 럭비대회도

럭비 꿈나무와 동호인들이 모여 전국 럭비 최강팀을 가린다.

'제6회 대한럭비협회장배 전국 럭비대회'가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15세이하부 14개팀(경산중·남성중·대서중·대전기양중·부천G·스포츠클럽A·배재중·부평중·서울사대부중·일산동중·시흥시G스포츠클럽A·양정중·연수중·천안부성중·청주남중)과 18세이하부 14개팀(전남고·경산고·대구상원고·명석고·백신고·부산체고·부천북고·서울사대부고·이리공고·인천기공·양정고·창원공고·천안오성고·충북고) 등 총 28개팀이 출사표를 던졌다.

7인제로 진행되는 15세이하부는 4개 조로 나누어 예선 리그전을 치른 후 각 조 1·2·3위가 콤파이트·볼 리그에 진출해 리그별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15인제로 게임을 펼치는 18세이하부는 부전승



지난 2023년 열린 '제5회 대한럭비협회장배 전국 럭비대회' 경기 모습. <대한럭비협회 제공>

으로 8강에 오른 인천기공과 창원공고를 제외한 12개팀이 8강 자리를 두고 예선을 치른다. 이후 토너먼트로 최종 승자가 결정된다.

한편 오는 17일 같은 장소에서 '2024 생활체육 전국 7인제 럭비대회'도 함께 치러진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여자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28명 참가

2024-2025 여자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 모두 28명의 참가해 2009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8일 이번 드래프트에 고교 졸업 예정자 22명, 대학 졸업 예정자 3명, 대학 재학 선수 1명, 외국국적동포 선수 1명,

해외 활동 선수 1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고교 졸업 예정 신청자가 20명 이상이었다면 것은 2009년에 열린 2010 신인 드래프트 당시 20명 이후 약 15년 만이라고 WKBL은 덧붙였다.

이번 드래프트는 20일 경기도 부천체육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즐거움

# 문화 산책

##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